

■ 삼성전자 광주 금형센터 가보니

최첨단 장비 구축... 생산성 4배 향상

연면적 1만9590㎡ ... 금형 제작 전공정 자동화

경제유발효과 1200억 ... 광주 디자인 발전 기대

“여기서 금형을 만들어 협력사에 넘겨주면 협력사에서 삼성의 제품을 양산할 겁니다.”

11일 광주시 북구 사이언스밸리(첨단산단) 삼성광주전자에 건립된 삼성전자 정밀금형개발센터(이하 금형센터)가 배일을 벗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금형센터의 라인을 소개한 생산기술연구소 이상훈 상무는 “이곳은 양산공장이 아니라 신기술·신공법을 개발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디자인을 차별화하는 곳”이라며 “삼성전자의 미래가 이곳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금형센터는 1000억원이 투입, 1단계 사업을 마쳤다. 연면적 1만9590㎡에 2층 규모의 이 센터 내부에는 현재 밀링 8대와 전극 1대, 와이어 2대, 방전 2대 등 최첨단 가공 장비 13대와 사출기 2대가 가동되고 있다.

이들 장비는 독일 DMG사, 일본 마키노, 오스트리아 엔펠 등 세계적인 금형 장비회사들과 삼성전자가 공동 개발한 것으로, 전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갖춰 24시간 무인 가동이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2012년 5월까지 2·3단계로 600억원을 더 투자해 가공장비 28대와 사출기 4대, 프레스개발라인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센터 안에는

앞으로 들어올 장비의 자리가 노란색 선으로 표시돼 있었다.

이 장비들은 원터치 세팅 시스템과 원모드·원카드 시스템을 도입해 금형 및 사출 과정을 단순화했다. 이 상무는 이를 통해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고 불량률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장비는 3년 전 삼성전자가 개발한 TV 캐비넷 사출기로 이 기기를 최근 업그레이드해 생산성을 크게 높였다.

하루 생산량이 종전 766개에서 3200개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해당 생산시간은 94초에서 47초로 줄었다. 내년 3월까지 35초로 단축된다.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에너지 절감 효과도 두드러지고 있다.

세탁기 튜브를 생산하는 1300t 사출기의 소비전력은 종전 49.1kwh에서 20.2kwh로 절감됐고, 반면 대당 생산시간은 83초에서 37초로 크게 줄었다. 작업장 내의 환온·환습 관리 시스템을 통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갖출 뿐 아니라 온도와 습도 변화에 따른 금형의 변형 등을 방지하고 있다.

앞으로 이같은 장비와 시스템·프로세서는 광주 지역의 협력사들에

전된다.

삼성전자는 협력사 기술진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삼성전자의 최신 금형 기술과 프로세스를 협력사와 공유해 동반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 협력사에 기술고문을 파견하고 전남대·한국폴리텍대학 등과 연계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고급인력을 육성한다.

이 상무는 “금형산업은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리스크가 커 중소기업들이 감당하기 힘들다”며 “삼성전자가 기술개발에 나서고 협력업체들은 안정적으로 양산하는 방식으로 동반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1일 오후 광주 사이언스밸리(첨단산단) 내 삼성광주전자에서 열린 삼성전자 정밀금형개발센터 준공식에서 최지성 삼성전자 대표이사, 강운태 광주시장, 유제철 광주일보 사장 등 각계 인사가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벤처기업협회 광주·전남지회 창립총회가 11일 오후 광주시 동구 무등파크호텔에서 300여명의 벤처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벤처기업 경쟁력 키운다

900여 업체 창립총회 갖고 본격 출범 ... 인력·경영 정보 교류

초대회장에 확대영씨

벤처기업협회 광주·전남지회가 11일 오후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출범했다. 초대 지회장은 확대영 참모차장 겸 대표이사가 맡았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강운태 광주시장과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 임종식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 이상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벤처기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벤처기업협회 광주·전남지회는 광주·전남지역 벤처기업 900여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네트워크를

통한 상생을 위해 창립했고, 울산·전북·제주·경남·부산·대구경북·인천지회에 이어 전국에서 8번째다.

협회는 벤처아카데미를 통한 교육 지원과 인력 양성, 경영, 홍보, 창업,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고 기업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

또 신생 기업의 벤처기업 등록 지원에도 앞장선다.

협회에는 소프트웨어협회, 동산제조협회, 콘텐츠협회 등 8개 분과협회의와 공공기관 소속의 수석연구원급 전문가들로 이뤄진 특별위원회가 활동하게 된다. 특별위원회에는 (재)광주정보문화

산업진흥원, 광주전남중소기업청, 광주중소기업지원센터, 전남테크노파크, 광양민권 U-IT연구소, 한국기술거래사회 등 50개 기관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황대영 초대 지회장은 “벤처기업이라는 특유의 폭발력과 에너지를 이용해 지역의 우수한 인적 자원의 활용을 통한 인재양성과 대학과 기업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취업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광주·전남지회 062-350-2500~7.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5년간 외환불법거래 13조원

최근 5년간 외국돈을 몰래 반출·반입하거나 재산도피, 돈세탁을 시도하는 등 불법으로 거래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1만여건에 이르며 규모도 13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외환거래 단속 실적은 9088건, 13조341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외환을 불법으로 반출·반입하거나 ‘환치기 계좌’를 운영하다가 적발된 외환사범이 9735건, 12조999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재산도피사범도 59건 2125억원, 돈세탁사범도 87건 1295억원이나 됐다.

외환사범 가운데 100억원 이상 거래를 불법거래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2006년 45건(2조2111억원), 2007년 43건(1조8734억원), 2008년 32건(2조7750억원), 2009년 57건(2조5131억원), 올해 들어 9월까지 27건(1조2330억원) 등 204건(10조6566억원)이었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889.91 (-7.16)
코스닥지수	496.80 (-0.28)
금리 (국고채 3년)	3.28% (+0.01)
원·달러 환율	1,116.70원 (-3.6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전남 완도 고금도 등 6곳 쌍용차, 무상점검 서비스

쌍용자동차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평소 정비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도서 지역에서 12~15일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울릉도, 인천 대청도, 전남 완도군 지역의 6개 섬(고금도, 약산도, 신지도, 노화도, 소안도, 청산도)으로, 쌍용차 전 차종에 대해 소모성 부품 점검, 무상 교환, 정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www.smotor.com)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080-500-5582)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www.kwangju.co.kr

등록말소·영업정지 건설사 급증

올들어 5423곳 달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건설산업 기본법을 위반해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경고,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건설사가 최근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설산업 기본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2006년 이후 지난 7월 말 현재까

지 5만6284곳에 달했다.

등록기준 미달, 시정명령 불응 등으로 인해 가장 수위가 높은 등록말소의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2006년 1724곳, 2007년 2227곳, 2008년 3065곳, 작년 3568곳, 올해 1~7월 1643곳으로 늘었다.

또 공사실적 기준 미달, 지시 불응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회사는 2006년 2144곳, 2007년 2227곳, 2008년 3073곳, 작년 7822곳, 올해 1~7월 3780곳으로 급증했다. /*연합뉴스

4분기 기업 자금사정 ‘맑음’

상의 500곳 FBSI 조사 ... 3분기보다 1P 상승

기업들이 4분기에 전반적인 자금 사정이 3분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전국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4분기 기업 자금사정지수(FBSI)를 조사한 결과 3분기보다 1포인트 높은 105로 3분기 연속 100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0~200으로 표시되는 FBSI가 100을 넘으면 전분기보다 자금 사정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자금 사정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로는 매출증가(85.6%), 수익성 증가(10.2%), 제조원가 하락(3.4%) 등을 꼽았다. 대기업의 FBSI가 107로 중소기업(104)에 비해 높았고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모두 105로 집계됐다. 자금조달시 예외 사항으로 금리인상(27.5%), 신규대출·만기연장(3.8%), 매출채권 회수부진(23.1%), 외화변동성 확대(19.1%) 등의 대답이 많았다. /*연합뉴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마음 속에서만 땀뿜던 사랑한다는 말, 3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삶의 즐거움은 누군가의 억지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직접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몸과 마음에 건강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kjepharm.co.kr

CE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비타민 A, C, E의 보급

- 목체피로, 임신 수유기 병중·병후의 체력 저하시, 노년기
- 눈의 건조감의 완화, 야맹증
- 햇빛·피부병 등에 의한 색소침착(기미, 주근깨)의 완화, 잇몸출혈·비출혈 예방
- 알츠하이머병 및 갱년기시 다음 증상의 완화: 어지·목결림, 수직지림·수축병증

이연의 보급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

광고심의필 : 1056-0600